

「뤼스 이라가라이의 성차이의 윤리」 - 박오복 일부

지금껏 철학의 주제는 sameness였지 difference는 아니었다. "정치적 실천이란 적어도 현재는 완전히 남성적이다. 여성이 스스로를 들리게/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영역을 개념화하고 다루는 우리의 방식에 '급진적인' 진화가 요구된다... 여성은 동등권과 동등한 임금을 위해, 고용과 교육, 그 밖의 분야에서 차별에 반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순히 남성과 '동등한' 여성이란 '그들처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성이 아닌 것이다." 여성은 다른 성이 아닌 '비남성', 즉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리얼리티'로서만 존재해왔고 따라서 차이는 말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단순히 지배적인 남성성을 규정하고 그 반대편의 여성성을 포용하는 식의 차이란 아무런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차이는 여성이 남성과 유사하게 되는 것이 아닌, **남성과 비교를 통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에 의해서 여성이 되는 것**을 뜻한다. "여성은 그녀 자신의 언어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고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여성으로 자리매김되며 가치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복원, 부정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주체의 배제를 통해서만 자신을 재현할 수 있는 남성적 담론에 얽매이지 않는 여성의 새로운 이미지와 모델을 창조하는 문제이다. 그녀에게는 같음의 질서에 기반한 타자성에서 진정한 타자(여성)를 떼어놓는 일이 더 시급하다. 성차의 윤리는 두 성의 주체성을 다 인정하는 윤리이고 이런 윤리의 수립을 위해서는 물질적, 육체적, 감각적, 자연적인 것은 여성에게, 정신적, 이상적, 지성적, 초월적인 것은 남성에게 할당하는 현재의 상징질서의 분열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서구 형이상학은 이 이분법적 체계에 근거하며 여성은 이 체계에서 하나의 독립된 주체가 아닌 다만 **남성주체의 조건**으로서만 존재하기에.

상징질서를 구성하는 육체의 형태학(해부학이 아닌). 남성의 상상계에서 초월적인 것은 육체의 형태학(발기, 삽입)과 관련되며, 남성의 나르시시즘도 초월적인 차원으로 나아간다. 여성의 성주체는 여성 주체의 조건이다. 단일성, 가시성, 경직성,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형적이고 시각적인 것에 의존하는 남성의 성과 달리, 여성의 성은 지속적인 교환과 흐름 속에 있는 복수성, 지속성, 개방성, 순환성, 산파성의 성이며 그녀는 이를 '두 입술'로 표현한다. "여성의 자기성애는 남성과 아주 다르다. 자기자신을 접촉하려면 남성은 도구 - 그의 손, 여성의 육체, 언어 - 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자기애무는 적어도 최소한의 활동을 요

구한다. 여성에 관해 말해보자면 그녀는 어떤 매개 없이도 그리고 활동과 비활동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자기자신을 접촉하고 있다. 여성은 항상 '자신을 접촉한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의 생식기는 지속적인 접촉상태에 있는 두 입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 안에서 그녀는 이미 둘이다 - 그러나 각각 하나로 분리될 수 없는 - 서로를 애무하는."

남성적 상징질서를 벗어나기는 불가능 - 이리가라이의 전략은 흉내내기 : "여성은 여성적인 역할을 의도적으로 취해야 한다. 그것은 종속의 형식을 하나의 주장으로 전환시키며 그리하여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흉내내기란 여성에게 있어서 그녀 자신을 단순히 답론 속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서 답론에 의한 그녀의 착취의 자리를 회복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 그녀가 '감각의', '물질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 개념에, 특히 남성적 논리에 의해 그리고 그 논리 안에서 그녀 자신에 대한 개념에 다시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즉 언어에서 가려진 여성성의 가능한 작용을 유희적 반복의 효과에 의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흉내내기는 이중의 과정이다. 어떤 것을 흉내내려면 그것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것의 형식을 재생산해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한계와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즉 흉내내기란 체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밖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수동적인 재생산일 뿐 아니라 흉내내어지는 대상을 재배치시킨다. 이는 심리학에서 무의식의 환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비슷하다. 그녀는 유희적인 반복으로서의 흉내내기를 통해 억압되어 보이지 않는 사회적 무의식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려는 것. 무의식적 환상을 언어화함으로써 억압을 드러내어 변화시키는 것. 그녀에게 여성의 상상계는 보편적인 본질적 여성성이 아닌 상징체계 안의 자리이다. 상징질서 안 두 성의 관계는 어느 하나의 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또한 지배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끝없는 교환과 흐름 속에 있으며, 유사성이 아닌 근접성에, 은유가 아니라 환유 속에 기초하는 이상적인 윤리적 관계여야 한다. '두 입술'처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

스스로를 인도민족의 독립이라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식민교육체계의 유산 사이에 갇힌 포스트식민 지식인으로 규정하는 스피박은 서구 대도시 대학에 몸담은 채 소수자 집단의 대의를 위해 투쟁하는 저명한 포스트식민 지식인이라는 자신의 모순되고 역설적인 위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비판적 사고를 할 때, '제1세계' 학계의 '제3세계' 대변인이나 토착 정보원 노릇을 하는 것에 저항한다는 사실을 고집스럽게 강조한다. 스피박의 글쓰기 스타일은 전통적으

로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행위성을 부인해 온 투명한 담론으로 이들 소수자를 재현 하려는 유혹에 저항한다.

해체론적 실천에서 스피박이 관심을 갖는 양상들 : 어떤 탐색적 노력에서건 잠정적이라서 잘 다룰 수 없는 출발점에 대한 인식, 지식을 향한 의지가 서열, 대립을 만들어내는 데 공모하는 검토과정의 폭로, 이 공모성의 폭로와 함께 주체로서 비평가가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과 공모하고 있다는 주장(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체계 안에 자신이 몸담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아이러니, 자신이 비판하는 체계에 의해서 자신이 근본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자신이 비판하는 것과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공모성의 인식), '역사'에 대한 강조와 이 공모성의 '흔적'으로서 윤리적.정치적인 것을 강조(우리가 이 흔적들에서 벗어나 분명하게 정의된 비평공간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증거), 해체담론 자체도 하나의 예로 절대 귀속될 수 없다는 사실.

** 스피박, 호미 바바, 로버트 영과 같은 포스트식민 지식인들이 데리다의 해체전략을 적극 사용한 것은 데리다의 전략이 비서구사회의 종속, 강탈, 착취를 해석하고 정당화해온 바로 그 철학적 전통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론적 어휘와 개념 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서발턴 연구집단 역사학 : 엘리트위주의 식민주의적 인도 역사기술에 반대하고 농민과 같은 하층민의 관점에서 인도사를 다시 기술하려는 이들 맑시스트 역사학자들은 서발턴의 정치적 목소리와 의지, 행위성을 회복하려 했다. 그들은 고학력 중산층 남성이라는 소규모 집단이 정치적 경제적 힘을 장악하고 시골에 근거지를 둔 대다수 농민, 노동자들은 민족독립이 가져온 이익을 거의 혹은 전혀 나눠 갖지 못하는 상황을 온존시켰다는 점, 즉 민족독립운동이 궁극적으로는 인도의 기존계급구조를 유지시켰다고 주장.

스피박의 서발턴에 대한 접근

① subaltern - 유럽 식민주의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착취당한 특정한 개인과 사회 집단의 경험과 역사를 묘사하는데 적합한 비평적 어휘를 찾으려 시도. 민족독립이나 반식민저항을 위한 정치 투쟁의 맥락에서 '피식민인', '여성', '노동자' 등의 지배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얼핏 힘을 박탈당한 개인과 집단이 공통의 억압자에 대항하여 단결할 수 있는 일관적 정치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듯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지배단어들로는 반식민 독립운동에서 빈번히 무시되고 잊혀진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본다. 서발턴은 기존의 정치적 지배단어들 대신, 중요한 정치적 담론들로 미처 정의되지 않은 다양한 종속적 위치

를 아우르는 단어로 채택. 이 말은 여성과 피식민지인처럼 '엄격한 계급분석'의 환원적인 용어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적 정체성과 투쟁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다. 스피박은 그 단어가 이론적 엄격함이 없기에 선택했다고 말함. (그람시는 엄격한 계급분석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모든 것, 이탈리아 남부에 근거를 둔 시골농민의 비조직적 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 그들에게는 하나의 집단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의식이 없었고 그래서 국가의 지배적 사상, 문화, 통솔력에 쉽게 영향을 받았다. 그람시는 유럽 산업노동자 계급이 사회, 정치적 변화의 핵심주체라는 맑스의 초기선언에 동의하면서도 시골 소농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실천들이 국가에 대한 저항이라는 면에서 체계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

② 스피박은 서발턴 연구집단 역사학자들이 사용하는 서구 맑스주의적 사회변화모델은 그들이 회복시키려는 서발턴의 반란과 저항의 복잡한 역사를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스피박은 서구의 정치저항과 사회변화 이론모델을 갖고 인도 민중의 역사와 삶을 재현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제3세계' 여성들의 삶은 너무도 복잡하고 비체계적이어서 서구 비평이론의 어휘로는 어떠한 직설적인 방식을 취한다고 해도 알려지거나 재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3세계' 여성들이 살아온 경험은 서구비평이론의 지식과 이해의 위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위기는 특권적 지식인들이 억압받는 집단을 위해 정치적 목소리를 낼 때 관건이 되는 윤리적 부담위험을 두드러지게 한다고 본다. 서발턴 의식을 '회복'하려는 연구는 서발턴 집단의 훨씬 더 복잡하고 차별화된 투쟁들에 거짓된 일관성 coherence을 부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서발턴 연구집단 역사학자들은 서발턴을 '대상화'하고 그럼으로써 서발턴에게 인과성과 자기결정성을 회복시켜줄 때조차도 지식을 통해 서발턴을 통제하려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스피박의 사상은 계급 정치학이라는 제한된 범주를 넘어 여성들의 운동이나 농민투쟁 혹은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청원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해방투쟁을 포착할 수 있도록 맑스주의 사상의 범주를 수정, 변경한 것이다.

"주권을 가진 서발턴 주체"라는 관념은 엘리트 지배담론의 효과에 불과하다. 서발턴의 정치적 의지는 엘리트 민족주의의 여파로서 만들어진 지배담론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거대서사화. "서발턴 주체"는 하나의 담론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 스피박은 "토착적 행위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토착민 가운데 권리를 박탈당한 집단의 사회적, 상징적 실천이 식민주의적-엘리트주의적 담론 안에서 재현되는(더 정확히 말해서 재현되지 않는) 방식을 보여주는 이론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 서발턴 주체가 엘리트 민족주의의 지배담론을 통해

구성되는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스피박은 여성, 농민, 부족 공동체의 특수한 투쟁들을 부르주아 민족해방이라는 지배적 역사서사와는 별개의 것이자 이 지배서사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의 내린다. 민족을 하나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구조로 재현해야 한다는 엘리트 집단의 주장에 대해 스피박은 인도 사회, 즉 사회적 투쟁의 장은 “연속적인 기호사슬” 혹은 흔적들의 네트워크임을 더욱 강조.

스피박이 ‘제3세계’ 서발턴 여성들의 저항을 가장 명확히 다루는 때는 문학텍스트를 비평할 때이다. 문학 텍스트는 서발턴 여성들의 역사를 발언하는 대안적인 수사학적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설 <드라우파디>에서 벵골 중산층 좌파 지식인인 데비는 60-70년대에 부르주아 민족주의 정부 및 지주들에 대항한 낙살바라 반란에 연루된 혐의로 군부의 수배를 받는 여성 혁명당원 돕디 메즈헨의 투쟁과 그녀가 체포되어 잔인하게 강간당하는 과정을 신중히 기록한다. 돕디가 벌거벗은 채 군사령관 세나나약(스피박은 이 사람을 제3세계를 찾아나서는 제1세계 학자에 가장 근접한 인물로 보고 분석 - 지식인의 공모의 패턴의 전형성, 제1세계의 다윈주의적 심미주의자가 실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제3세계의 착취에 참여하게 되는 가를 보여주는 알레고리)에게 도전하듯 서있는 마지막 저항의 순간이 스피박은 “변화하는 역사적 순간에 혁명 내부에서 일어난 여성의 투쟁에 관한 알레고리”를 제공한다고 봄.

스피박은 제국주의적 회로 바깥에서 자율성을 갖는 절대적 타자로서의 서발턴 개념은 문제가 있다면서 서발턴의 의식도 지배 담론의 안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지배담론의 구조에 균열을 일으켜 파열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할 ‘내부의 외부’에 주시하자고 주장하며 서발턴 연구회의 남성주의적 입장을 비판한다. 그들은 남성 서발턴 주체를 변화의 제1동인으로 특권화한다. 비서구 주체들의 단순한 대변인representative이길 거부하는 스피박의 태도는 서발턴이 갖는 저항의 역사나 정치 조직의 가능성을 비판하기 때문이 아니라 권리를 박탈당한 집단의 삶이 어떻게 지식과 재현의 지배적 체계에 해를 입어왔는지 깊이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스피박이 생각하는 해체적 독서 실천의 ‘정치적’ 가치는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식의 맑스주의나 민족해방운동 혹은 서구 페미니즘의 일반적 주장을 경계하는데 있다. 힘을 박탈당한 집단이 하나의 통일된 정치적 주체로서 집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양 대변될 때 구성되는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 진짜 노동자나 진짜 여성의 투명한 초상이라기보다 언제나 이런 집단들을 대리하는 지배담론의 효과라고 본다.

스피박은 서구 페미니즘과 제국주의와의 공모관계를 감지해내고 ‘제1세계와 제3세계 사이의

전지구적 관계'라는 (거짓)말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구페미니즘 비평은 보편성이나 학문적 객관성에 대한 남성중심주의적 진리주장에서 여성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남성중심주의적 진리주장 혹은 객관적 지식이 저지르는 보편적 실수를 답습. 모든 지적 실천에는 지배사회와 정치구조들과의 정치적 공모의 위험성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기에.

윤리적 소통 - "불가능한 것의 경험".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맺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나는 아포리아에 대한 이 경험 -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할지라도 - 없이는 정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의란 불가능한 것의 경험이다. 아포리아에 대한 경험의 구조를 갖지 못한 정의에 대한 의지와 욕망과 요구는 정의에 대한 요청이 아닌 것이다. ...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계산의 요소이며 법이 존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의는 산정할 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산정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산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포리아의 경험 - 있을법하지 않지만 필요한 - 은 정의의 경험이다. 즉 그것은 정의와 부정의 사이에서의 결정이 결코 한 법칙에 의해서 확보될 수 없는 순간의 경험인 것이다"(데리다, 『법의 힘』 중)

스피박은 "정치적으로 긴급할 때조차도 찬찬히 읽으라던" 데리다의 당부를 언급하며 이와 유사하게 피억압자들을 위해 말하기보다 그들에게서 "배우기 위해 끈기있게 학습할 것"을 당부. (스티브 모턴, 『스피박 넘기』 참조)

「세 여성의 텍스트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중 <제인 에어>에 대한 읽기

19세기 '영문학'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두 가지 사실 - ① 19세기 영국의 사회적 임무로서의 제국주의가 영국인들에게는 영국의 문화적 재현의 결정적인 부분이었던 사실을 유념하면서 19세기 영문학을 읽는 것. ② 문화적 재현의 생산에 있어서 문학이 한 역할을 잊지 않기.

영문학 연구와 또한 위대한 제국주의 시대 유럽의 식민화 문화의 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위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문학사에서 이제는 "제3세계"라 불리고 있는

것의 "세계화"¹의 내러티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착취당했지만 재발견되고 해석되고 영어로 번역되어 커리큘럼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 아직은 intact 풍부한 문화적 유산들, 멀리 떨어진 문화들로서 제3세계를 간주하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문학 분과의 제국을 확대해가는 중에도, 그러한 "세계화"를 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기표로서의 "제3세계"의 출현을 조장한다.

영미 페미니즘 비평은 여성주체 문학에 대한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적인 찬양 - 개인주의 - 에 근거하여 페미니즘 규범을 확립한다. 제국주의의 공리의 재생산. 영미 페미니즘 비평의 cult text인 <제인에어, 1847>에서 오늘날 "제3세계"가 되어 있는 것의 "세계화"의 작동방식을 검토.

소설을 끌고 가는 두 축: 출산("동반자적 사랑"에 집중된, 성적 재생산을 통한 가정 만들기)과 영혼의 제작(soul making, 사회적 임무를 통해 시민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된 제국주의 프로젝트). 완전한 개인주의자도, 그렇다고 남성도 아닌 여성 개인주의자가 자신을 명료히 할 때, 즉자적 "원주민 여성"(담론 안에서, 기표로서)은 그런 방금 출현한 규범(여성 개인주의)을 공유하는 작업에서는 배제된다. 여성 개인주의를 획득하려는 싸움은 더 큰 극장인 엘리트 지배층 개인주의 안에서 '창조적 상상력' 이데올로기에 의해 미학적 장에 색인으로 첨가된 뒤 전개된다.

도입부에서 드러나는 여주인공의 주변부적 개인주의의 태도.

소설은 가족/반가족counter-family이란 짝을 연속적으로 배열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제인, 로체스터, 그들의 자녀들이 이룬 가족 공동체로 끝난다. 소설에서 담론의 장을 제공하는 능동적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제인을 반가족에서 합법적 가족으로 이동시킨다.

브론테는 "사회적 임무로서의 제국주의" 공리학이 산출한 인물인 Bertha Mason을 통해 법조문의 글자보다 더 위대한 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인간과 짐승의 경계에 선 그녀를 창조한다. 아직 인간이 아닌 타자not-yet-human Other

스피박에게 "칸트"는 18세기 유럽의 가장 유연성있는 윤리적 순간을 가리키는 환유

¹ 세계화 worlding - 글쓰기 일반, 혹은 텍스트성이 제국주의적 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사학적 구조를 제공해온 방식.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동인도회사의 공문서, 리빙스톤의 여행기록을 위시한 많은 텍스트들은 식민지 영토를 임자없는 텅빈 땅terra nullitus로 지칭하고 토착민들을 문화, 문자, 정치적 주권이 없는 사람들로 지칭해왔다. 이는 식민지 확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설득력 있는 비유들이다. 이런 비유는 실제사람과 영토가 서구의 글쓰기, 텍스트성 그리고 지식의 지배적 체계를 통해 통제되고 종속되고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착취되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metonymy이다. 칸트는 범주적 명령이라는 말을 순수 이성에 의해 주어진 보편적인 도덕적 법으로 보면서 이렇게 적고 있다-수단과 목적이라는 이분법을 통해 그 자체로 목적인 이성적 인간과 이성적 인간에 의해 지배받는 모든 것을 나눔. 기독교 종교의 윤리 철학으로의 자리이동. 철학이 위협하게도 국가에 봉사하는 지점을 드러냄. "이교도heathen를 인간으로 만들어 그가 자신을 그 자체 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는 칸트의 명령.

스피박은 소설 분석에서 아무도(이글턴, 구바, 산드라 등) 주목하지 않은 성 존 리버스St. John Rivers의 이야기(tangent narrative)가 소설의 내러티브가 끝나는 지점에서 텍스트의 결론을 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진 라이스Jean Rhys는 1965년에 『드넓은 사르가소 바다』를 출간하면서 버사 메이슨에게 "write a life"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술회. 리스는 버사의 인간성, 제국주의에 대한 비평가로서의 버사의 온전한 정신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Grace Poule은 버사에 게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며 버사의 격렬하고 폭력적인 반응reaction을 일으킨 것은 그녀의 선천적 잔인성(짐승성)이 아니라 "legally" - 리차드 메이슨에게 칼을 휘두른 것은 그가 "법적으로" 나는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때라는 것 - 란 단어에 내재되어 있는 위선이었다고 지적한다. 로체스터가 폭력적으로 버사로 재명명하는 앙트와네트라는 인물 안에서 라이스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정체성과 같은 은밀하고 친밀한 것이 제국주의 정치학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함. 라이스는 페미니즘과 제국주의의 공모성을 드러낸다.

『제인에어』에서 버사는 자신의 "자아"를 허구적인 타자, 브론테의 버사로 변형시키고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인에어가 영국 소설의 페미니스트 개인주의자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스피박은 이 부분을 제국주의의 일반적인 에피스테메적(인식론적) 폭력의 비유로, 즉 식민주의자의 사회적 임무를 영예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자기희생적 식민 주체의 구성으로 읽어야 한다고 본다. 라이스는 적어도 식민지 여성이 그녀의 자매의 공고화를 위해 발광한 짐승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적어도 인도에서 기존의 문학교육의 규범 안에서 커리큘럼이나 강의 계획서를 재배열함으로써 계획적인 제국주의의 에피스테메적 폭력을 풀 이데올로기적인 실마리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직화된 식민 주체가 굳건히 들어선 제국주의의 후반부 동안이라면 <델러웨이 부인>에 등장하는 기능상으로 분별력이 없는 인도와 1920년대 인도에서 생산된 문학 텍스트들을 직접적으로 비교실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는 좁은 의미에

서 문학이나 문학비평을 통해 질문을 감행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 둘은 모두 애어리
얼을 산출하는 프로젝트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실된 기원에 대한 향수에 굴복하지
않고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기 위해서는 문학 비평가는 제국주의 통치 시절의 문서들에 도움
을 청해야 한다.